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특성 · 가족역동성 및 가족자원만족도

-안성지역 중 · 고등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traits, family dynamics and *family resource*
satisfaction of parent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한경대학교 아동 · 가족복지학과
부 교 수 이 명 숙
한경대학교 아동 · 가족복지학과
겸임교수 이 미 선*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정 우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Myoung Suk Le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
Adjunct Professor : Mi Sun Lee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Emeritus : Jeong Woo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make a comparison with psychological traits, family dynamic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sources of the adolescent and their parents.

* 연락처자: 이미선(lmsun1@chollian.net)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93 cases includi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151),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142).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ner control and self identity of paren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adolescents. Second, the level of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of paren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adolescents. Third, on the satisfaction with family resourc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Finally, influential variables on satisfaction with family resources of adolescent and their parents are self identity and family cohesion.

key word: 자아정체감(self identity), 가족역동성(family dynamics), 가족자원만족도(family resource satisfaction)

1. 서론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은 이제 각국의 사회, 가정 전 부문에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 사회, 가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에 있어 구성원들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가족은 의식주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생활공동체이면서 사랑에 기반한 정서적 유대와 서로 연대의식을 지닌 집단공동체이므로 가족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 변화 및 이로 인한 가정 내에서의 세대간 갈등은 그 양상이 다양하며, 갈등의 파급효과 또한 개인에게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도 심각할 수 있다.

가정내 세대간 문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기에 특히 첨예화되기 쉽다. 가족생활단계상 청소년기 가족의 경우 부모들은 중년이 되어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이유를 시작하고 자신의 독립적 자아를 탐색해 가는 시기로 가족 기능의

점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즉 이 시기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기존의 생활방식으로부터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의 재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년기인 부모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자아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된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탈하고 분리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과 정서적 혼란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청소년 자녀의 경우도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려 하고, 자아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자아 정체감의 확립을 위해 애쓰며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또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압력을 느끼고 부모나 기성 세대 및 기성 사회 제도 등에 저항하는 시기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 및 가족관계면에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시기에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처하여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지 않거나 기존의 관계에 고착하려 들면 세대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영숙 외, 1994).

세대간의 차이는 비단 오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는 경험한 시대가

다르고,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므로, 세대차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세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화할 경우 가정 내 세대간의 문제는 가정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여 가정이 역동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 존속하며, 잠재적 적응력을 발휘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세대간의 가족관계 및 가족자원 인지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래지향적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의 기초 자료로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청소년 자녀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자녀간 심리 특성, 양육태도, 갈등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역동성 및 가족자원 에 대한 인지의 차를 조사 연구하여 부모와 자녀간 세대차의 일부분을 밝히므로써 부모-자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간의 문제,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되는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특성

1) 자아정체감

인간은 자기 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부딪히는 내적 충동이나 욕구, 외적인 자극, 그리고 도

덕적 가치를 수용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통합함으로써 자신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라는 정체감 내지는 통합감을 갖게 된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충동과 욕구, 능력, 역할, 가치 등을 통합하여 추출해 낸 통합된 자기구조의 심상들을 자아정체감이라고 한다(김애순·윤진, 1997).

에릭슨은 심리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간의 심리적 건강은 바로 정체감 형성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정체감 발달 계획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이 정체감 형성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김영애, 1996).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청소년 자녀와 그들의 부모들은 에릭슨의 심리적발달 단계 중 정체감 성취 대 역할 혼란의 시기인 제5단계와 생성감 대 침체감의 시기인 제7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5단계인 청소년기와 제7단계인 성인중기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인생주기 중에서 정체감 발달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에는 자신을 재정립하는 가장 주요한 시기로서 심리적 변화, 성적 변화, 내적 행동의 질적·양적 변화, 정신적 작용과 기능의 확대, 상반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대한 자기적응을 새롭게 시도하는 때이며 기존의 정체감 요인들이 새로운 갈등에 부딪치게 되어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민경미, 1995). 갈등과 방향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과 자기가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흔히 청소년들은 고립감, 무력감, 우울감, 생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병리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한 자아와 세계사이의 힘겨운 싸움이다. 이러한 자아탐색을 통해 '나는 누구이며 이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는 자아정체감 성취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한편 건전한 성인은 삶의 철학을 통합시킬 줄 알며 성숙된 자아상을 지니게 되는데 성인기의 자아정체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숙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다. 제7단계인 성인중기는 개인이 가족이나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과 힘이 절정에 달함과 함께 신체·생리적으로는 감퇴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과제는 생성감과 침체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성인기의 정체감 발달과정은 두 가지 과정-정체감 동화와 정체감 조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정체감 동화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체감의 틀에 맞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경험을 해석해 버리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정체감 조절이란 개인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서 적절히 자신의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인기의 정체감 발달은 두 가지 과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하여 내적으로 균형상태를 이루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신태수, 1986).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극심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체감의 형성이 어렵고도 장기간을 요하는 과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체감이 확립되어야 하는 청소년기 자녀와 정체감이 원숙한 수준에 도달하여 생성감을 성취해야 할 성인 중기인 부모 모두에게 있어서 자아정체감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내외통제성

내외통제성은 사회학습이론을 통해서 소개한 인간의 성격이론들 중의 하나이다. Rotter는 인간의 행동은 목표지향적이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예상 혹은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기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면서 통제 의 소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송금희·이효심, 1993).

내외통제성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느냐 또는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운명이나 우연, 그리고 개인적 통제를 넘어선 외부적인 힘에 돌리느냐에 따라 내적통제와 외적통제로 나뉘어진다. 개인은 과거 여러 상황에서의 일련의 경험을 통해 행동과 강화간의 인과적 관계에 의하여 내적 혹은 외적 통제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내외통제성은 자아개념, 책임성, 적응성, 목표성취 등 개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보다 주위환경을 잘 조정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높은 성취욕구를 지니며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내적통제성을 지닌 개인이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내적통제성과 개인의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어, 내적통제성향을 지닌 개인은 보다 가치 있는 산출을 위하여 상황을 조정할 줄 안다고 하였다(현은민, 1994) 청소년의 내외통제성을 연구한 송금희·이효심(1993)은 내적통제성을 보인 청소년은 외적통제성의 청소년보다 장애에 덜 민감하며, 문제해결의욕이 높고,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행동이나 사건들이 자기자신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 내적통제자들은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며 욕구좌절 상태에서 자기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하며 타인에

대해 관용적이거나, 이에 비하여 외적통제자들은 주변의 사건들을 우연이나 타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격적이며 장애를 민감하게 느껴 타인 의존적이라고 하였다.

2.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역동성

가족이 가족 내·외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사회와 계속적인 상호작용 내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어떻게 가족원들의 안정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그 어느 때 보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적응을 하면서도, 개인 및 가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타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전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 또는 기능적인 단위로 보는 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려는 일련의 과정에 의한 결과를 '항상성'으로 설명한다. 항상성이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경향, 그리고 이러한 균형이 깨어질 위협을 느낄 때 이를 회복하려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족체계는 항상 어느 정도 변화하면서 체계를 스스로 유지하는 적응성을 지니며 또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체계들, 그리고 외부체계들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역동적이다(전귀연·최보가, 1995).

가족적응력과 응집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가족의 역동적 특성을 설명한 Olson 등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은 가족이 체계의 지속을 목적으로 가족원들간의 관계, 지배적인 가치 및 구조 등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능을 하므로 가족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이라고 하였다(박경숙,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가족의 가족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이란 개인이 가족내의 다른 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된다. 이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가족외부 환경과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가족 공동의 시간과 가족원 개인의 사적시간 허용정도, 가족공동의 공간과 개인의 사적공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친구와 사적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의 유형, 가족 공동의 관심사 및 여가, 전체 오락활동과 개인활동의 보장 정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Olson 등, 1983).

집단의 효율적인 기능과 활동역량은 집단구성원의 긴밀한 유대관계인 응집성에 따라 결정된다. Olson 등(1983)은 가족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자율감의 정도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미분화로 분류하여, 과잉분리일수록 응집성이 낮고 미분화 수준일수록 강한 응집성을 지닌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중간정도의 응집성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한 Galvin과 Brommel(1982)은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가족은 미분화된 가족으로서 가족원들이 매우 가깝게 결합되어 자율성이나 개인적인 요구 및 목표달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과도한 정체감을 갖는 반면에, 연속선상의 다른 끝에 있는 가족은 과잉분리가족으로서 친밀감이나 가족응집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가족원들은 자율성이나 개인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문제가족에서는 가족응집성이 높거나 낮은 양극인 경우가 나타나고, 응집성이 중간수준일 때 더 효과적인 가족기능을 수

행하며 개인발달에도 적합하다고 하였다 (Lavee, 1985). 반면에 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 즉 가족응집성과 가족만족도 간의 관계가 곡선적이 아닌 직선적인 관계로 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Smith, 1986)도 있다. 가족의 응집성이 불안한 상황에 대처하는 가족자원으로서 가족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때, 가족응집성의 강화가 가족의 취약성을 극소화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가족문제 중 어떤 문제를 겪게 되든지 그 해결책이 가족원의 응집성과 관계되므로 가족의 응집성, 일체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경숙, 1993).

2) 가족적응력

가족적응력이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단계상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적응은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는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리더십(지도력)의 유형, 부모의 자녀 훈육방식, 가족성원들간의 협상능력,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 가족규칙의 명확성과 융통성 영역으로 구성되었다(Olson 등, 1983)

이러한 가족적응력은 가족내의 권력구조와 역할관계가 갖는 상황성 및 가족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에 대한 가족체계의 대처능력으로, 적응적인 가족체계는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요구한다(Olson 등, 1983). 즉 가족의 적응력은 지속성을 유지해 가는 동시에 변화하는 가족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체계가 본래의 응집성과 통합력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지가 주요과제이다.

가족적응력은 경직, 구조화, 유연, 혼란의

수준으로 분류되며, 경직수준일수록 변화의 수준이 낮고, 혼란수준일 때 변화의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를 통해 적응력과 가족의 기능은 곡선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적절한 수준의 적응력이 가족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력이 매우 낮은 경직된 가족과 적응력이 매우 높은 혼돈된 가족은 가족기능에 있어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며, 적응력이 적당히 구조화된 가족과 유동적 가족은 가족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하였다(유순덕, 1987).

다른 한편으로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로 극단에 속하는 가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가족기능과 가족 응집성·적응력의 관계가 곡선적이기 보다는 직선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가족원의 감정적·물리적 일치감을 강조하는 양극단적인 수준의 행동을 기대하고 가족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극단수준의 가족도 기능적인 가족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Olson et al., 1983). 따라서 자기자신보다 가족의 이익, 화목과 결속을 중히 여기며, 가장의 권위나 가정의 규칙에 엄격한 특성을 지닌 정상적인 한국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적응력에 대한 직선적 가설이 타당할 것이며, 이런 직선적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김진희, 1989; 박초아, 1989; 박경숙, 1993)들이 있다.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성원간의 경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가족원들이 가족에 소속되었다는 강한 의식을 갖는다. 즉 가족구성원은 개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융통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보장될 때 가족은 자녀의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제공하게 된다.

3.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자원만족도

가정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제공하는 생활의 터전이다. 가정은 가족의 가치와 자원을 중심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체계로서 자원을 축적하며 새로운 자원을 얻고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변화되어 나간다(Deacon과 Firebaugh, 1980).

자원은 개개인이 어떤 계획을 수행할 때 혹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이정우 외, 1996). 특히 가족자원이란 가족구성원, 가족요소, 지역사회심리, 사회상호간의 어떤 특성으로 가족 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조절하며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적응에 요구되는 역할을 한다(김양희 · 전세경, 1989). 자원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목표달성은 물론 이를 통해 최대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러나 같은 자원이라도 가족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자원을 구성하게 된다. 더욱이 가정관리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생활만족도, 생활의 질 등은 자원의 객관적인 양보다는 자원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Heider(Rowland 등, 1985에서 재인용)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오히려 지각된 환경이라고 하였다. 즉 가족의 현실은 가족의 내적 수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며, 이러한 지각된 현실이 가족들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조영희, 1991).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가정경영자가 이용 ·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가정자원의 양이나 만족감이 크게 다르다(고보선 · 이영호, 1995).

이렇듯 동일한 가족자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족

자원만족도가 달라지므로 부모와 자녀의 가족자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4. 심리적특성 · 가족역동성 및 가족자원만족도

심리특성과 가족역동성 및 가족자원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나 위의 세 변인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자아정체감과 가족역동성

자아정체감과 가족역동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족적응력의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적응력이 낮은 집단인 경직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감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가족적응력이 높은 매우 융통적인 집단의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즉 가족적응력이 낮은 가족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적인 훈육방식을 유지하며,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통제방식을 사용하고, 역할과 관계규칙을 상황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가족원에게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전귀연 · 최보가, 1995). 또한 민하영(199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의 변화에 대한 가족의 낮은 적응력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려고 하는 청년기의 발달적 변화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의 내적 불만을 가중시키며, 가중된 내적 불만은 청소년기의 적응문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내외통제성과 가족역동성

내외통제성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의 하나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으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설인자, 1989). 선행연구에 의하면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보다 주위환경을 잘 조정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졌고 높은 성취욕구를 지녔으며,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환경을 조절하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수(1991)는 통제소재가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백기청(1987), 고은숙(1992) 등도 통제소재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여,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낀다고 하였다.

Williams(1985)는 인간통제성향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 결과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오연옥(1999)의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이 강할수록 가정생활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생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생각하는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는 일상생활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려는 의지가 강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가정을 경영하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 나타나는 가정의 여러 생활상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수용·평가하므로써 자신의 가정생활이 보다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생활의 장으로서 가정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 가족역동성과 가족자원만족도

최규련(1996)에 의하면 가족의 결속과 정서적 유대감이 낮을 때 가족원간에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게 되며 청소년자녀의 비행은 초기에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가족이 생활의 변화에 대해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능력이 적은 경우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요구를 잘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내적 불만을 가중시켜 비행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부모의 훈육방식의 문제, 부모-자녀관계의 친밀도와 애착 및 의사소통의 결핍, 부모의 감독소홀 등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의 훈육방식이 정당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태도, 심한 체벌, 모순되고 비 일관적인 태도 등은 청소년 비행을 조장한다(최규련, 1996).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도와 의사소통이 결여되고, 부모의 감독과 관심이 적은 경우 청소년 자녀의 비행 행동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청소년은 부모의 규범과 기대에 둔감하고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시키지 못함으로써 내적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아울러 외적 통제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된다. 반면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유대관계가 좋고 부모의 감독과 관심이 적절하며 자녀가 부모에 대해 애정을 가질 때 자녀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게되고 반사회적 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현희·조병은, 1993).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은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심리적 특성(내외통제성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가족역동성(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가족자원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특성, 가족역동성이 가족자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심리적 특성 변인인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으로 정의되며, 내적통제성향과 외적통제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Rotter(1971)에 의해 개발되고, 오해섭(1998)이 사용한 검사도구 중 11문항을 수정하여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허구 문항 2개와 타당성이 떨어지는 1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7문항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42$ 였다. 점수가 1

에 가까울수록 외적통제성향을 보이므로써 자신의 운명을 외적인 힘, 행운 등 외적인 요인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점수가 2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운명이나 행동이 자신에 의해 결정되며 자신의 능력이 개인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자아정체감은 Ochse와 Plug(김영애, 1996, 재인용)가 개발한 19문항 중 Erikson의 발달단계에 따라 2문항씩 1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가족역동성은 Olson(1986)등이 개발한 FACES III를 최연실(1996, 144)이 번역한 가족적응력과 가족응집성 평가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가족응집성 Cronbach's $\alpha = .86$, 가족적응력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가족자원 척도는 Rice와 Tucker(1986)가 분류한 인적·경제적·환경적 자원의 제 영역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자원을 선정하여, 이들 자원들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인적자원만족도 Cronbach's $\alpha = .77$, 경제자원만족도 Cronbach's $\alpha = .78$, 환경자원만족도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학생(%)	부모		
			부	모	계(%)
중학생	여학생	88(58.0)	27(60.0)	59(56.7)	86(57.7)
	남학생	63(42.0)	18(40.0)	45(43.3)	63(42.3)
	소계	151(100)	45(100)	104(100)	149(100)
고등학생	여학생	74(52.1)	26(44.8)	44(58.7)	70(52.6)
	남학생	68(47.9)	32(55.2)	31(41.3)	63(47.4)
	소계	142(100)	58(100)	75(100)	133(100)
합계		293(100)	103(100)	179(100)	282(100)

* 무응답으로 부모-자녀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

3. 연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안성시 소재 남자중·고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400쌍의 청소년기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임의 표집 하였는데 미수거 및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293쌍 586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Chronbach's α 를, 세대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 t-test,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분석

1. 조사대상의 심리적 특성

1) 중학생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

내외통제성에서는 중학생과 부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외통제성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심리특성으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이 서로 유사한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김시업, 1999)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생각된다.

자아정체감은 여중생 및 남중생집단 모두에서 부모집단의 자아정체감이 자녀집단의 자아정체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집단이 아직 청년기 초기로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고등학생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

내외통제성에서는 남자고등학생과 부모집단 사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보다 외적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또래집단이나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더 밀접하게 연루되며, 외적으로 활동지향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아정체감 역시 남자고등학생과 부모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보다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

<표 2> 조사 대상의 심리적특성

변 인	여자 중학생과 부모			남자 중학생과 부모		
	여중생	부모	t	남중생	부모	t
내외통제성	1.95	1.72	1.03	1.77	1.74	1.12
자아정체감	3.23	3.43	3.49***	3.35	3.55	2.66**
변 인	여자 고등학생과 부모			남자 고등학생과 부모		
	여고생	부모	t	남고생	부모	t
내외통제성	1.74	1.74	.06	1.65	1.73	2.26*
자아정체감	3.21	3.32	1.60	3.15	3.41	3.76***

* p<.05 ** p<.01 *** p<.001

등학생 역시 청년기 초기에 있으므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사대상의 가족역동성

1) 중학생과 부모의 가족역동성

가족응집성에서는 부모가 남·녀 중학생 자녀보다 응집성 정도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적응력에서는 부모가 남자 중학생 자녀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가족생활에 더 큰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녀보다는 자신들의 가족이 기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 세대가 자녀세대에 비해 가족내의 거리감을 더 적게 인지한다고 한 선행연구(윤진, 1989)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고등학생과 부모의 가족역동성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모두에서 부모집단이 자녀들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그 부모들보다 고등학생과 그 부모들간의 차이가 큰 것은 고등학생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는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면에서 더욱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결과는 청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자율감이 매우 큰 시기로서 가족규칙이 훨씬 유연하게 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응집성과 적응력이 낮다는 Olson(198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3. 조사대상의 가족자원만족도

중학생집단과 그 부모, 고등학생집단과 그 부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가족자원만족도 수준도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인적자원, 경제자원 및 환경자원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설문이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화의 물결이 진행되고 있는 도농복합의 과도기에서 오는 교육 시설 미비 및 전체 국민들의 평균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을 밑도는 경제상황과 지역사회의 편의시설 등 근접환경 등은 진학에 대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기의 자녀나 그 부모 모두에게는 만족스러운 환경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 및 도농복합 지역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가족자원에 대한 인지 범위를 넓히고 가족자원 개발에 도움을 줄 수

<표 3> 조사대상의 가족역동성

가족역동성	여자 중학생과 부모			남자 중학생과 부모		
	여중생	부모	t	남중생	부모	t
가족응집성	3.56	3.73	2.14*	3.60	3.92	2.98**
가족적응력	2.84	2.91	.86	2.59	2.87	2.89**
가족역동성	여자 고등학생과 부모			남자 고등학생과 부모		
	여고생	부모	t	남고생	부모	t
가족응집성	3.39	3.59	2.28*	3.24	3.64	3.74***
가족적응력	2.73	2.87	1.94*	2.54	2.84	3.30**

* p<.05 **p<.01 ***p<.001

<표 4> 조사대상의 가족자원만족도

가족 자원		여자 중학생과 부모			남자 중학생과 부모		
		여중생	부모	t	남중생	부모	t
가족 자원 만족도	인적자원	3.48	3.42	.69	3.61	3.62	.44
	경제자원	3.31	3.22	.93	3.55	3.34	1.87
	환경자원	3.15	3.19	.30	3.46	3.38	.65
	계	3.32	3.28	.48	3.56	3.45	1.20
가족 자원		여자 고등학생과 부모			남자 고등학생과 부모		
		여고생	부모	t	부모	자녀	t
가족 자원 만족도	인적자원	3.30	3.35	.77	3.17	3.31	1.58
	경제자원	3.28	3.19	.87	3.30	3.21	.83
	환경자원	3.14	3.25	1.36	3.30	3.15	1.19
	계	3.24	3.27	.43	3.26	3.23	.36

*p<.05 **p<.01 ***p<.001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조사대상의 심리적 특성, 가족역동성이 가족자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특성, 가족역동성이 가족자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녀의 가족자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응집성($\beta=.30$), 내외통제성($\beta=.15$), 자아정체감($\beta=.13$)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자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만족도, 생활의 질 등이 자원의 객관적인 양보다는 자원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청소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내적통제성향을 지닌 개인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가치 있는 산출을 위해 상황을 조절

한다는 선행연구(현은민, 1994)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응집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족응집성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가족자원일 뿐 아니라 가족자원만족 수준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 것이다.

2) 부모의 심리적특성, 가족역동성이 가족자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가족자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beta=.26$), 가족응집성($\beta=.20$)으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자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긍정감이 클 때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최외선, 1991)와 유사한 것으로 적절한 자아정체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원을 자신의 방식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목표달성은 물론 이를 통해 최대의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위기를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청소년 자녀의 가족자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변인	가족 자원 만족도	
	b	β
내외통제성	.49	.15**
자아정체감	.17	.13**
가족응집성	.24	.30***
가족적응성	-	-
상수	1.54	
Adjusted R2	.1770	
F-ratio	25.23***	

*p<.05 **p<.01 ***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와 자녀 모두 가족자원만족도에 가족응집성과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응집성이 가족자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주체는 부모이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모델링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성숙된 자아상을 지님으로써 자아정체감 혼란시기에 있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건전한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심리특성·가족역동성·가족자원만족도의 차이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세대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청소년 상담과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안성시 거주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그들의 부모 293쌍, 총 5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paired t-test,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 가족자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변인	가족 자원 만족도	
	b	β
내외통제성	-	-
자아정체감	.31	.26***
가족응집성	.17	.20***
가족적응성	-	-
상수	1.54	
Adjusted R2	.1412	
F-ratio	28.05***	

*p<.05 **p<.01 ***p<.001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집단이 자녀집단에 비해 내적통제 및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통제 수준이 부분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통해 부모와 남고생 자녀 간의 세대차와 이로 인한 잠재된 갈등 및 스트레스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 수준 역시 부모가 자녀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청년기라는 발달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감을 획득하려는 시기이므로 응집성과 적응력을 가장 낮게 인지하는 시기이다.

셋째, 가족자원만족도는 부모와 자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체로 만족'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농촌과 도시적 변화가 함께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의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 자아정체감과 가족응집성이 가족자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에 비해 자아정체감과 가족응집성 인지 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의 자아정체감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가족의 응집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가족자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자원은 가족원 및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가족이 자신들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생활만족도 및 생활의 질을 높게 인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자원의 객관적인 양 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가족자원에 대한 인지가 가족자원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자원의 객관적인 양을 증대시키는 노력 못지 않게 주관적으로 가족자원인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을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요구와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통합하여 성숙된 자아상을 지니게 하는 것은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가족자원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부모의 자아정체감과 가족응집력은 정체감 형성 과정에 있는 청소년 자녀들의 정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부모 스스로가 자아정체감을 확고히 확립하여 주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물론 부모를 삶의 모델로 삼는 청소년 자녀에게도 중요할 일이다. 또한 가족응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가족문화를 형성하여 자녀에게 가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고, 가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빠른 사회적 변화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세대간의 차이를 강조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족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모,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도농복합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및 부모-청소년자녀를 위한 지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덧붙여 세대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도구의 개발과,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지만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자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고보선 · 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권 6호.
- 2) 고은숙(1992).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3) 김시업(1999). 결혼과 가정. 학지사.
- 4) 김애순 · 윤진(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중앙적성출판사.
- 5) 김양희 · 전세경(1989).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 6) 김영애(1996). 성격심리학. 하나의학사.
- 7)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대 석사학위논문.
- 8) 김현수(1991). 직무만족과 작업오류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집단성지각과 내외통제성향의 중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9) 민경미(199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1)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권1호.
- 12) 박초아(1989). 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 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3) 백기청(1987).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4) 설인자(1989).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에 따른 성공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5) 송금희 · 이효심(1993).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욕구좌절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권 1호.
- 16) 신태수(1986). 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17) 오연옥(1999).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건전도와 가정관리 스트레스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8) 오해섭(1998). 청소년의 환경책임성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9)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20) 이영숙 외 (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20) 이정우 외(1996). 최신 가정경영학. 수학사.
- 21) 전귀연 · 최보가(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권 3호.
- 22) 정현희 · 조병은(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 23) 조영희(1991). 자원적정지각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권 1호.
- 24)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권 1호.
- 25)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권 1호.
- 26) 현은민(1994).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갈등 관리방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 2호.
- 27) Danes, S.M.(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A path model. HERJ 19.
- 28) Deacon, R.E. & Firebaugh, F. M.(1980). Family resource management. Massachusetts ; Allyn and Bacon Inc.
- 29) Galvin & Brommel(1982). Family communication. Scott, Foresman and co.
- 30) Lavee, Y.(1985).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ion to stress. Ph.D Univ. of Minnesta.
- 31)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
- 32)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 6th, N.Y. : Macmillan Pub.
- 33)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S.Y.(1985). Perceived adequacy if resource. HERJ 14(2).
- 34) Smith D.A. & Reid, W.J.(1986). Role expectation and attitudes in dual-earner families, social casework. The J of contemporary Social Work.
- 35) Williams, R.C. Demo, D.H. & Small, S.A.(1985).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 J of Marriage and Family, 47.